

# “그날의 비극 생생... 별이 된 304명 잊지 않을게”

## SOCIETY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 세월호 참사 11주기 시민합동분향소 운영

광주 5·18광장 시민합동분향소·온라인 공간 추모 물결 희생자들 뉘 위로... “진실규명·안전사회 구축 이뤄져야”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세월호 11주기, 잊지 않을게.”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에 광주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1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이곳에는 지난 12일부터 세월호 11주기 시민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도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뜻말이 놓인 제단에는 이미 수십 송이의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광장 분향소에는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의 현수막에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걸음을 옮기던 일부 시민들은 잠시나마 분향소에 들러 제단에 국화꽃을 바치고 고인들의 사진을 바라보거나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분향소를 지나는 행인들도 그 날의 참사로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은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탄식을 내뿜었고, 한 여성 조문객은 추모 후 손에 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조문을 마친 시민들 중 일부는 주변에 마련된 기억저장소를 찾아 염서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또 바구니에 준비된 노란 리본을 쟁겨 가거나 자신의 가방에 착용하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김종민씨(29)는 또래 친구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해마다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고 있다.

올해도 여김없이 이곳을 찾아 304명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했다.

김씨는 “참사가 11년이 지났지만 비속한 나이로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애도의 감정이 열여지고, 반복되는 참사에 무덤덤해져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4월이 되면 “너무 잊고 싶지 않으나 싶어 ‘아차’ 하는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추모객들은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세월호 가족들이 주장하는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간절히 기원했다.

시민합동분향소를 매년 지키는 김은경 어린이도서관연구회 광주지부장은 “10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날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너무 안타깝다. 아직도 현수막에 게시된 희생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이 된 무고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죄인 같고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전했다.

분향소를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한 온라인 추모 공간에도 애도 물결이 확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온라인 기억관’에는 이날 기준 11만3200여명이 방문해 저마다 세월호 참말로 활짝 피어보지도 못한 채 떨어진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까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진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광주 시민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남구 ‘남구촛불’은 15일 오후 5시 백운광장 양우내안에 앞 광장에서 기억문화제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6시30분에는 서구 품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품암촛불’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오후 12시30분부터 북구청 앞 광장에 모여 기억문화제를 펼쳐지며 저녁 7시에는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예보 06:02      달맞이꽃 20:24  
 맑음 19:04      달맞이꽃 16:19



광주	7~13
목포	9~13
여수	8~14
순천	6~15
구례	4~15
광주	7~14
임도	9~15
진남	9~13
고흥	7~14
진도	8~13

목포	밀물 (고)	03:04 / 15:03
	썰물 (저)	08:13 / 20:18
여수	밀물 (고)	09:45 / 22:11
	썰물 (저)	03:43 / 15:40

## “누범기간 또 범행”...구속 잇따라

공무집행방해·사기·도주우려 등 이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앞서 서부경찰은 10일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판매금을 게시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만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인계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잡아 끌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범죄로 최근 출소해 누범 기간이라는 점,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윤용성 기자 yo1404@

## 북구 공직자들, 원칙 무시하는 의회에 ‘속앓이’

기초의원 정책지원관들, 공문서 없이 전화로 자료 요구 비판

광주 북구청 공직자들이 기초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의 절차를 무시한 자료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정활동 참고 자료 요구 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전화로 자료요청을 하고 있어서다.

13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새물게시판에 ‘의회 자료요구’란 글이 게재됐다.

“참 답답해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라며 운을 뗀 작성자는 정책지원관들의 도넛 자료요구 행태를 비판했다.

작성자는 “자료요구는 공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정책지원관들은 자주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는 건가요”라며 “일반적인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생각에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거절도 못하고, 규정을 어겨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며 “공문으로 요청을 받아야 과장·국장의 결재를 받고 제출하는데, 전화로 요구하면 일 반적인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의정활동 참고 자료 요청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55조에 시행되고 있으며, 북구는 공문서로 자료 송·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북구청 공직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이 “자료요구는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관리이지만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자료요구는 지양돼야 한다”, “의원을 앞세운 정책지원관의 행태가 문제다”는 반응이었다.

공공 북구의회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참고 자료 요구와 관련해 관련 팀장들, 기획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문으로 주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공공 북구의회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참고 자료 요구와 관련해 관련 팀장들, 기획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문으로 주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 지인 부탁...취객 폭행한 조폭

취객 폭행한 조폭의 부탁을 받고 행패를 부리던 손님을 폭행한 조폭들에게 일행이 쇠고랑.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공동폭행 혐의로 조직폭력배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초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 B씨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아.

당시 이들은 친분이 있던 술집 임주로부터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와서 말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게에 찾아가 손님 B씨를 때렸다고. 폭행 직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현재는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A씨 일행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4880만원 가로챈 보이시피싱 수거책 검거

40대 보이시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광안경찰은 보이시피싱 현금 수거책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B씨는 저리 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시피싱 조직에 전화를 걸었다가 ‘신규 대출을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B씨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상한 김새를 눈치 챈 B씨는 112에 이를 알린 뒤 A씨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임정호 기자 jih4415@

광주·서구·국내·09·0005호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유로 173 대연빌딩 3층 (상무지유 롯데마트 옆)